

## 좌정승파종회 향사 봉행

좌정승파종회(회장 具滋轍)는 4월 26일 오전 대구시 무태동에 위치한 재실 모선당(慕先堂)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방지를 위해 회장을 비롯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여 7세조 문절공(文節公 : 具鴻)과 8세조 참판공(參判公 : 具宗之)의 향사를 고유제로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한편 의성군사공종회(회장 具本慶)도

5월 3일 경북 의성군 가음면에 위치한 묘역에서 10세조 별시위공(別侍衛公 : 具長孫)의 향사를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여 봉행하였다. 대구·경북 지역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큰 고통을 겪었으며 이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잘 극복해왔다.



4월의 재실 모선당 전경

## 문천군사파종회 향사 봉행

### 6세조 묘역 새롭게 정화 영모재 중수헌성비 제막

문천군사파종회(회장 具永洙, 會)는 지난 3월 전북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에 위치한 6세조 묘역을 새롭게 단장하고 묘역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였으며, 2012년도에 중수한 영모재에 대한 중수헌성비를 제작하여 재실 영모재 마당에 설치하였다. 4월 2일에는 6세조 묘역에서 전서공(具義)의 향사를 봉행하고, 7세조 문천군사파조공(具爰立)의 향사는 재실 영모재(永慕齋)에서 고유제로 간소하게 봉행하였다. 향사를 마친 후 영모재 중수헌성비의 제막식을 가졌다.



영모재 중수헌성비



##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 별세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3월 28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고인은 고(故) 구인회 LG 창업주의 첫째 동생인 고 구철회 전 LIG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고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사촌 동생이다. 1935년 경남 진양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대와 독일 쾰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64년 락희화학에 입사해 락키증권 사장, 락키개발 사장, LG정보통신 부회장을 거쳤다. 이후 1999년 LG에서 계열 분리해 LIG그룹 경영을 이어왔다. 3월 31일 발인했으며 장지는 경남 진주 선영이다.

## 부산MBC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구자중(具滋仲) 부산MBC 경영본부장이 지난 3월 3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신임 구자중 부산MBC 사장은 공주사대부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지난 1987년 MBC 경영부문 사원으로 입사했다. MBC 광고 기획부장과 광고국 부국장, 경영본부장을 역임했으며 낭장과 후손이다.

## 참판파종회 향사 봉행

참판파종회(회장 具大英, 書)는 4월 15일 오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에 위치한 영묘당(靈廟堂, 남골당)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서 7세조 참판파 파조공

(具成美)의 향사를 고유제로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영묘당은 2005년도에 건립하였다.

## 목원대 교수로 임용



구정모(具玎謨) 중앙대학교 경영학박사가 지난 3월 목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구 교수는 도원수파 총렬공계 별좌공 후손이다.

## 우수시공업체로 선정

구자일(具滋日 / 전북도종회 총무이사) 대표가 운영하는 전주의 전일전업사가 전기 안전설비 및 우수시공업체로 선정되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 우수시공패를 받았다.

# 대중회 신관 옥상 방수공사 시행

대중회는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2개의 건물(구관, 신관)을 소유하고 있다. 1970년에 신축한 구관은 연면적이 약 53평으로 지상 4층이며, 1980년에 신축한 신관은 연면적이 약 127평으로 지하 1층과 지

상 3층이다. 재작년에 구관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하였고, 금년 5월 중순부터 신관 옥상 방수공사와 복도 계단 바닥재 교체공사를 시작하였으며 6월 초순에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 부 음

구창회(具昌會) 서울시중회 감사, 회향 친목회 회장 별세(4월 30일)

### 결 혼

구제길(具濟吉, 滋) 대중회 이사 겸 광주전남총회장의 장남 영진 군(5월 23일)

# 당진 4세조 묘역 잡초제거 및 제조제살포 작업 시행

충남 당진시 송악읍 가교리에 위치한 4세조 면성부원군(具藝)의 묘역은 면적이 1,000평은 족히 넘는다. 왕릉에 못지않다. 이곳이 사패지(賜牌之地)라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면적이 넓다 보니 잔디를 관리하기가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대중회 및 4세

조면성부원군총회 이사와 판안동파 병사공 신암공 종중 회장을 맡아 종사 활동을 하는 자국(滋國) 종인이 20년 이상 이곳 묘역을 관리해 오고 있으며 금년 5월 초순과 중순에는 농사일로 바쁜 와중에 내외가 함께 잡초를 깎고 뽑고 제조제를 살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 능성 구씨 문화기행 [9]



구중서(具仲書) / 문학평론가

한국의 대기업으로 정상을 거루는 엘지 그룹은 1931년 한 지방도시 진주에서 조그만 포목가게 '구인회 상점'으로 출발했다. 창업자 구인회(具仁會)는 능성 구씨 도원수파 호양공(致祥)계 후손이다. 그는 1907년 경상도 진양군 지수면 승내리에서 재서공(再書公)의 장남으로 출생했다.

조부 연호공(然鎬公)은 조선조 말엽 고종대에 문과 급제 후 홍문관에 근무했다. 이 무렵에 연호공은 고종 임금으로부터 선도와 그림과 부채를 선물로 받기도 했다. 청일전쟁을 겪은 후 연호공은 난세를 개탄하고 진양으로 낙향했다. 고을 군수가 가마를 타고 예방했고 지역 유학자들의 우려를 받으며 그는 유학자의 명예를 지키며 지냈다. 이 집안이 경상도에 정주하게 된 것은 선대에 현풍(鎭豐)의 원을 지내며 자제를 진양의 허씨 집안 규수와 결혼하게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소년 인회는 13세에 조부가 세운 창강정사(滄江精舍)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고 14세에 허씨 집안 규수와 조혼했다. 1924년 18세에 신학문에 뜻을 두어 서울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향리의 대

## 문화와 더불어 있는 대기업 LG 창업자 구인회 회장

가족 현실이 시대 현실의 발전에 뒤지고 있는 데에 마음이 쓰여 학업을 중단하고 낙향한다. 향리에서 협동조합을 세워 경제 현실의 안목을 키워갔다.

바로 이 경제활동의 초기에 청년 구인회는 문화의식을 겸비하는 성격을 드러냈다. 향리에서 『동아일보』 지국을 경영하고 또 아마추어 신파연극(素人劇) 운동을 전개했다. 이 문화의식은 경제인으로서의 그의 일생에 계속해서 병행되었다.

그는 활동의 중심축으로 정한 기업 경영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의욕을 확장해 나아갔다. 사업의 첫 단계는 향리에서 가까운 진주로 나가 점포를 차리는 것이었다. 그의 사업적 의욕은 언제나 현실에 진입하는 것이다. 당시의 진주는 국내에서 알려진 일종의 풍류문화 도시였다. 사람들의 일상 차림새부터 화사한 편이었다. 그리하여 진주에 포목점 '구인회 상점'을 열기로 했다. 부친과 조부의 허락을 받고 도움을 받는 데엔 어려움이 있었다. "양반 선비의 자제가 시장에 나가 장사꾼이 되다니, 이런 남체스러운 일이 있는가."하는 꾸지람을 들었다. 그래도 장남 인회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자본금 2천원을 받아서 진주에 상점을 차렸다. 처음에는 진주의 상점이 적자를 내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꾸준히 다방면으로 창의적인 탐색을 하다가 부산으로 무대를 옮겼다. 1947년에 락희화학공업사를 세워 화장품 크림을 생산했다.

락희는 주로 생활필수품들을 생산해 나아갔다. 화장품 크림, 비누, 치약, 칫솔,



故 구인회 회장

플라스틱 제품, 선풍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들은 일상 생활에 연결되는 것이었다. 1953년에 락희는 다시 서울로 진출해 금성사, 엘지 그룹으로 확장 발전한다. 락희 회사 시절의 일화들이 있다. 구인회 회장은 점심시간에 홀로 걸어 나가 수위실의 수위와 함께 단골 설렁탕집에 가곤 했다. 또 어느 날엔 구인회 사장이 부하 직원과 함께 회사 복도를 건다가 걸음을 멈추었다. 사원 한 명이 가슴에 명찰을 달고 있는데 능성 구씨 서(書) 향렬이다. 평소 모르면 사이이고 홀로 절차를 거쳐 입사한 사원이다. "아 아저씨, 지낼 만합니까?" 사장이 젊은 사원에게 한 말이다.

구인회 회장은 유교 가풍의 종친의식에 투철했다. 국내의 대기업 중 사주 형제간에 불화가 있고 노사간 갈등이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엘지 그룹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세평이다. 이것도 근본적인 문화의식의 미덕이다.

엘지 그룹은 지금 최첨단 과학기술의 제품들을 생산하지만, 경제적 수익사업 외에 한국 사회 문화부면에 참여해 도움을 준 업적들을 지니고 있다. 『국제신보』 인수 운영, TBC 텔레비전 개국에 참여, 연암도서관의 개설, 실업계 연암전문대학의 창설, 『경남일보』 인수 운영, 연암문화재단의 창립 등이 있다.

구인회 회장이 세상을 떠난 마지막 날이 1969년 12월 31일이었는데 바로 며칠 전인 17일에 '연암문화재단'을 창립했다. 자신의 호를 붙인 문화재단으로 생애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그 뒤로 엘지 그룹이 '엘지 아트센터' '화담숲' 등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도 엘지 창업자 구인회 회장의 돈독했던 문화의식을 계승하는 것이다.

### 절대 속지 마십시오

대중회의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서적(성씨보감, 대동보감, 뿌리보감 등)을 만들어 보내면서 종인들에게 문중발전기금 명목으로 거액을 갈취하는 일이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최근 들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대상을 골라 대중회 사무국장 000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수년간에 걸쳐 보감을 편찬했는데 재정이 어려운 대중회를 위해서 한 질만 구입해 달라면서 20여 만원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으니 종인들께서는 이러한 전화를 받으시면 절대로 구입하지 마시고 주변 종인들에게도 알려주시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대중회에서는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서적 등을 판매하는 일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전화 : 능성구씨대중회 02-742-6818

선조열전 - 52-③

14세 능해군(綾海君) 초당(草塘) 구성(具歲)

여강 구 자 칭(한학자/전통문화연구가)



공의 사람됨으로 말하면, 어눌하여 말솜씨가 형편없었는데, 그럴 듯하게 꾸며대는 일은 하나도 없이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구 쏟아 내곤 하였으며, 일단 자기 마음속으로 옳은 일이라고 여기면 그대로 행동으로 밀고 나가곤 하였다. 그리고는 어떤 위세도 겁내지 않고 자신을 이롭게 하는 일에도 빠져 들지 않으면서, 남이 뭐라고 비웃고 조롱하거나 간에 의기(意氣)가 저상(沮喪: 기운을 잃음)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일을 대개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하루같이 고수하였다. 용만(龍灣)에 있을 당시에, 선묘(宣廟)가 공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간혹 불시에 소대(召對)를 명하여 조용히 함께 국사(國事)를 은밀하게 의논하기도 하였는데, 그중에는 외부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선묘가 평소애 들은 유언비어를 가지고 공에게 질문하자, 공이 말을 더듬으면서 격앙(激昂)되고 분개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다가 두서(頭緒)가 없게 되고 말았는데, 선묘가 이로부터 다시는 공을 부르지 않았으니, 참으로 군신(君臣)의 관계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겠다.

공은 기억력이 뛰어나서 문자를 한두 번 정도 보기만 보면 종신토록 잊어버리지 않았으며, 아무리 심오한 뜻이나 어려운 말이라도 마치 잘 드는 칼로 베어 나가고 영킨 실타래를 풀어내듯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입으로 표현해 내곤 하였다. 또 경적(經籍)에 널리 통달했음은 물론이요, 국가의 전고(典故)와 씨족(氏族)과 보첩(譜牒)에 이르기까지 꿰뚫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공은 글을 지을 적에도 화려하게 꾸미는 일에 힘쓰지 않고 한결같이 법도에 따라 점잖게 지으면서 내용이 분명하게 이해되도록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았으므로, 선배인 윤해평(尹海平: 윤근수尹根壽)과 유진원(柳晉原: 유근柳根)이 이를 칭찬하여 마지않았다. 그리고 공이 과거에 급제한 초기에 여러 차례나 과제(課製)에서 수석을 차지하였으므로, 태학사(太學士: 흥문관 대제학)가 바야흐로 독서당에 들여보내려고 하였는데, 마침 시의(時議)가 바뀌는 바람에 선발되지 못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공은 결코 문한(文翰: 문필에 관한 일)을 가지고 자임(自任)하지 않았으며, 사람들과 수창(酬唱: 시가를 불러 서로 주고받음)하는 일도 드물었다. 그리고는 항상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자그마한 글재

주를 끌어 모아 단지 재목(災木)의 계책만을 일삼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저 뇌사(詠詞)나 신장(驢章)과 같은 글을 지을 줄 알아서 세상의 수요(需要)에 응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겠다." 하였다. 이 때문에 평생토록 지어 놓은 사교(詞稿)도 매우 간략하였다.

처음에 공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짓밟히며 박해를 당하자, 함께 어울려 지내던 친구들도 공이 고지식하기만 하여 일을 망친다고 여긴 나머지 버린 사람 취급을 하며 점점 관계를 끊어 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폐조(廢朝: 광해군의 조정)에 이르러 정사가 혼암(昏暗)해지자 간악한 흉도(兇徒)들이 숲처럼 둘러서 있게 되었는데, 이때 한 시대의 명류(名流)들이 재질과 명망 때문에 용납되기도 하였으나, 결국은 향초와 악초(惡草)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법이라서 거의 모두 조정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가령 전후에 걸쳐 한껏 기세를 떨치며 공을 요절내려고 안달하던 자들 역시 모두 도울(樗枘: 극악무도한 흉적)의 이름을 면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고, 반정(反正) 뒤에는 마침내 차례로 공개 처형을 당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공의 경우는 일찌감치 조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 수가 있었고, 작위(爵位)도 그대로 지닌 채 세상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면 공이 우뚝 세운 그 자취야말로 모두가 국가의 대체(大體)와 관련된 것으로서 후세에 전해질 만한 것이었으니, 이 어찌 이른바 따라갈 수 없는 부분(不可及)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것이 어찌 공이 지려(智慮)로 환히 비추어 보고서 그렇게 한 것이라야 하겠는가. 이 역시 다만 정도(正道)를 고수하며 기다리는 과정에서 자연히 이러한 결과를 이루어내게 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금상(金上: 인조)이 잠궁(潛宮)에 머물러 있던 초기에 공에게 수학(受學)하였는데, 반정(反正)을 행할 때에 공의 막내아우인 능성공(綾城公: 구굉具宏)과 종자(仲子)인 능천공(綾川公: 구인후 具仁壘)이 큰 공훈을 으뜸으로 세웠다. 그리하여 그 성대한 훈벌(勳伐)이 근세에 볼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공은 일찍 세상을 떠나 이 모두를 미처 목도(目睹)하지 못하였다. 처음에는 녹훈하는 예(例)에

성금내역

(2020.3.26~5.19)

정성어린 성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사는 종인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대종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협찬금>

상모 이사(도원수파총회장)	1,000,000	송림 상주시 함창읍	20,000
산회 이사	1,000,000	본철 영등포구 양평동	30,000
소계	2,000,000	진회 밀양시 무안면	50,000
누계	4,000,000	홍림 보은군 탄부면	20,000

<능주향사(고유제) 전성금>

판안동파총회	100,000	충림 옥천군 청산면	20,000
병사공 신암종중	100,000	달림 영동군 용산면	20,000
호양공종중	200,000	제근 옥천군 옥천면	20,000
소계	400,000	연상	50,000
누계	900,000	자현 인천시	50,000

<고창향사(고유제) 전성금>

판안동파총회	100,000	현서	50,000
병사공 신암종중	100,000	소계	710,000
소계	200,000	누계	2,420,000
누계	600,000		

<종보구독료>

려경 수원시 영통동	50,000	판안동파총회	100,000
본원 대전시 둔산동	50,000	병사공 신암종중	100,000
교운	50,000	호양공종중	200,000
명회 대구시 학정동	30,000	소계	400,000
능회	50,000	누계	800,000
동회 김포시 장기동	100,000		
맹회 양산시 소주동	30,000		

<4세조면성부원군총회 이사협찬금>

산회 이사	200,000
소계	200,000
누계	400,000

<4세조면성부원군총회 당진향사(고유제) 정성금>

판안동파총회	100,000
병사공 신암종중	100,000
호양공종중	200,000
소계	400,000
누계	800,000

따라 의정부 좌찬성으로 추증하였다가, 이때에 이르러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났던 당시에 정청(庭請)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다시 영의정으로 추가해서 증직한 뒤 관원을 보내 제사를 지내 주도록 하는 데 이르렀다. 공은 무오년(1558, 명종 13) 모월 모일에 태어나서 무오년(1618, 광해군 10) 모월 모일에 죽었으며, 양주(楊州) 관아 동쪽 군장리(群場里)에 안장(安葬)되었다. 전부인(前夫人) 하동정씨(河東鄭氏)는 별좌(別坐) 정억령(鄭億齡)의 딸인데, 3남 2녀를 낳았다. 장남 구인기(具仁基)는 전임 배천군수(白川郡守)이고, 다음 구인후는 바로 능천군(綾川君)이고, 다음 구인학(具仁壘)은 군자감 주부(軍資監主簿)로 일찍 죽었다.

장녀는 종실인 풍해군(豐海君) 이호(李浩)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찰방(察訪) 유충걸(柳忠傑)에게 출가하였다. 후부인(後夫人) 완산이씨(完山李氏)는 정랑(正郎) 이경(李

鏗)의 딸로서 1녀를 낳았는데, 그 딸은 직장(直長) 박린(朴瀾)에게 출가하였다. 이밖에 내외손으로 남녀가 약간 명이다.

나는 어려서 학습할 때 공에게 배운 적이 있으므로, 공의 지행(志行)을 가장 자세히 알고 있는 터이다. 그래서 공의 대체적인 행적을 이상과 같이 대략 서술해 보았는데, 앞으로 당세(當世)의 입언(立言) 군자들이 이를 의거해서 재단(裁斷)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바이다.(끝)

\*추기: 공은 폐모론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사후에 특별히 영의정으로 증직되어 능해부원군이 되고, 충숙(忠肅)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으며, 문집으로 초당집(草塘集)을 남겼다.

\* 이 글은 조선 중기 한문학 4대가의 한 분인 택당(澤堂) 이식(李植) 선생이 지은 <능해군 초당 구공 행장>으로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본을 수정·윤문한 것임을 밝혀둔다.

알려드립니다

종보는 연 6회, 홀수 달에 발행되고 있으며 구독료는 1년에 2만원입니다. 종보가 알찬 내용으로 계속 발행되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종보구독료 입금계좌 ☞ 하나은행 : 286-910004-14304 예금주 : 능성구씨대종회

힘드시죠? 코로나19 감염이 진정되는 듯하여 일상 생활이 정상화되는가 했으나 이태원을 기점으로 다시 전국적으로 바이러스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더욱더 조심하시면서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잘 지키시면 머지않아 이 어려움은 극복될 것입니다.

# 건강한 Life is Good

소소한 일상의 행복과  
가족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머무는 공간,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음식을 담는 그릇,  
매일 입는 옷까지

건강한 홈 Life를 위해  
LG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